

2020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

開 會 辭

2020. 12. 10. (목) 08:00
포시즌스 호텔 서울, 누리블룸(6층)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 제 민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제민입니다.

오늘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EI와 함께 「미 대선 이후 경제통상환경 변화 전망 및 한국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2020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우선 오늘 이 컨퍼런스를 함께 준비해 주신 김홍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님과 캐슬린 스티븐스 KEI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 축사를 해주신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기조연설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내주신 로버트 젤릭 전 세계은행 총재님께 감사드리고,

채드 본 박사님, 데릭 시저스 박사님, 바바라 위즐 前USTR 부대표님, 최석영 경제통상대사님 등을 비롯한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참석해주신 여러분과 유튜브를 통해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인사말씀 드립니다.

II.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대외경제정책 변화 전망

지난 11월 치러진 미 대선은 '세기의 선거'로 주목받는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와중에도 미국에서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민주·공화 양당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하였습니다.

이러한 선거의 결과로 내년 1월 출범할 바이든 정부는 여러 측면에서 트럼프 정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대외경제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자유무역 기반의 다자 무역체제를 지지하면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회복(Renew American Leadership)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중국에 대한 공제와 견제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상호 관세부과 등 극단적 대립보다는, WTO 등 국제기구와 동맹에 기반한 수단을 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파리협정 복귀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선언 등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탄소 감축 목표 설정, 무역과의 연계 움직임 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급사슬의 국내화(Buy American)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여전히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바이든 정부의 인사와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고, 정책 결정 과정에 미 의회 등 국내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받을 것인 만큼, 예측이 조심스러운 측면이 많습니다.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내 여론 및 복잡한 이해관계를 감안하면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이 단번에 전환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 등 국내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통상

정책의 우선순위가 밀릴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미국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바이든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Ⅲ. 한국의 대응방안

대외의존도가 높고, 세계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미국 정책의 변화와 그에 따른 경제환경의 변화를
기민하게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Rule-based order 재건이 시도되면서
글로벌 교역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동맹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데 대해서도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Rule-based order에 대한 지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중간 기술 패권 경쟁, 미국의 공급사슬 국내화,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 미국의 산업 정책에 대응하여
산업별 영향 분석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환경 분야의 국제기준 강화 등 신통상규범에 대응한
국내제도 정비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는

우리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그린 뉴딜과 맞닿아 있는 만큼,
이 분야 협력의 여지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이든 정부가 기후변화 관련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공약한 만큼,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를 적극 모색하고,
친환경 기술 관련 공동 R&D, 아시아 지역에서의 다자공조 모색 등
한-미간 그린 뉴딜 공조를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IV. 마무리 말씀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바이든의 당선은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불확실성도 여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이 자리가,
미국 대외경제정책의 향방을 가늠해 보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해보는
매우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